

북미 한국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승실대학교 박정신

1. 머리글

미국은 세계 제 1차 대전 전후에 처음으로 세계 지도국 대열에 끼어들었고, 세계 제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최대 강국으로 등장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으로 세계를 주름 잡아 왔다.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폴 케네디(Paul Kennedy), 에즈라 보겔(Ezra Vogel), 다니엘 벨(Daniel Bell) 과 같은 이른바 세계의 석학들이 “미국의 몰락”을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시대” 또는 “아시아의 세기”의 도래를 내다보기도 했다.¹⁾ 그러나 우리가 감지하는 세계역사의 흐름은 그렇게 전개될 것 같지 않고 또한 그렇게 전개되고 있지도 않다.²⁾ 세계가 하나의 단위가 되어 지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치열한 경쟁의 한 바탕이 될 21세기에 들어서면서도 여전히 미국이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 된다. 이 21세기도, 적어도 그 초기에는 미국이 ‘하나가 되고 있는 세계(a global village)’의 중심에 서 있고, 그래서 세계 학문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미국에 있어서의 ‘한국학(Korean Studies)’³⁾은 한국 사람들과 이들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왜 코리아에 관심가지고, 어떻게 코리아를 바라다보며, 그들의 코리아 인식의 결과 결은 어떠하며, 넓이와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질문들을 한번쯤 던져 봄직하다.

특히 미주에는 한인사회가 급성장하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그들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다인종, 다문화 사회인 미주에서 정체성을 찾으려는 욕구에 따라 자기들의 문화나 역사에 관심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정착과

* 이 글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북미주한인의 역사』 下권(2007년)에 수록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 1) 1983년 Suntory foundation 세미나에서 Daniel Bell은 일본을 “A model to the rest of the world”라 치켜 세웠는가 하면(Look Japan, 1983년 8월 11일 볼 것) Ezra Vogel은 아예 Japan As Number One: Lessons for America(Tokyo: Charles E. Tuttle Co., 1980)라는 책을 내놓기도 하였다.
- 2) Ezra Vogel, Daniel Bell 같은 이의 일본관점은 아시아관에 정면으로 도전한 나의 주장은 “Yellow Peril or White Panic :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Western Pacific Survey: Japan Symposium on United States-Japan Relation(Proceeding)을 볼 것. 이 심포지엄은 1992년 11월20일 Edmond, Oklahoma에 있는 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의 Western Pacific Institute가 주최하였다.
- 3) 나는 한국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다. 이 용어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코리아의 남쪽만을 연구하는 학문을 뜻하기에 말이다. 그래서 ‘코리아학’이 남북을 아우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코리아학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글에서는 남북을 연구하는 뜻으로 ‘한국학’이라고 하기로 한다.

생존을 위해 경제문제를 비롯한 현실문제에 주된 관심을 쏟아야했던 이민 1세대들과는 달리 이른바 ‘이민 2세대들’은 주류사회에서 교육받으며 당당히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다른 이들과 어깨를 함께 하며 자기들의 소리를 찾고자 나섰다. 연방이나 주 정치에 뛰어들어 소수민족을 결집시키며 당당히 주류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니 이런 노력이 드높아짐에 따라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뿌리 역사와 문화에 비례하여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들이 의사, 변호사, 정치가, 사업가로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는 학계로, 특히 한국학 연구에 뛰어들어 미주 한국학 주류에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미주 한국학계에서 한인학자들, 특히 교포 학자들의 진출, 그들의 관심을 살피는 일은 미주 한인사회의 성격을 이해하고 미주 한국학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따금 신문 한구석에서 미주에서의 한국학의 실상을 접해왔다. 그러나 거의 모두가 가끔 미국이나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잠시 머문 신문기자들이나 대학 교수들의 관찰, 그래서 깊이 있는 관찰에 토대를 두지 않은 단편적 이고 피상적인 기사나 보고들이다. 이들의 보고는 하나같이 하버드(Harvard), 버클리(UC-Berkeley), 워싱턴(Washington), 시카고(Chicago), 하와이(Hawaii)와 같은 미국 대학의 한국학이 몇 명 되지 않는 교수와 학생들이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허덕이고 있으니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야 할 때라고 말들 한다. 그러나 미주에서 한국학, 넓게는 동아시아학(East Asian Studies)이나 아시아학(Asian Studies)의 실상을 아는 이들은 이러한 보도나 보고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캐나다를 잠시 방문하거나 잠시 머문 기자나 대학교수들의 관찰이 잘못된 통계, 그들이 방문객으로 접촉한 미국의 한국(Korea) 전문가들의 외교적 겸손과 수다스런 엄살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보고처럼, 미국과 캐나다의 한국전문가들의 수는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993년 Korea Society가 펴낸 주소록에 의하면, 한국전문가로 미국의 대학, 연구소, 기업, 정부 따위에 속해 있는 이들이 250명이 넘는다.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미국전문가, 미국학 프로그램이 있는지 자성적으로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미국에는 미국이 필요한 만큼의 한국학으로 독립된 학과가 몇이냐는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국학이 반드시 독립된 학과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수많은 한국전문가가 각 대학의 기존학과, 이를테면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외국 어문학, 철학, 종교학, 심지어는 신학과에 속해 한국을 열심히 가르치고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 이를테면 유씨엘에이(UCLA)에만 해도 한국학

4) Craig S. Coleman, A Guide to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Los Angeles: The Korea Society/ Los Angeles, 1993)을 볼 것. 이 주소록에 실린 학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5퍼센트에서 100퍼센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관심정도는 다양하지만 말이다.

이라는 독립된 학과는 없지만, 역사학, 어문학, 사회학, 종교학에 속한 한국전문가 7명이 동아시아 언어·문화 학과(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에서 중국, 일본의 역사, 사회, 언어, 정치, 문화, 종교 전문가들과 서로의 연구를 견주면서 활발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 전역의 우수 대학에 자리 잡고 있다.⁵⁾

영국, 호주, 홍콩, 캐나다 등 영어권의 한국학이 미국 중심이어서 미국에서의 한국학을 더 넓게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아시아학보』(Journal of Asian Studies), 『한국학보』(Journal of Korean Studies)와 같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학술지와 하와이대학의 『한국학보』(Korean Studies)와 같은 각 대학, 각 지역마다 있는 역사, 사회, 경제, 사상관계 전문 학술지를 통해 수준 높은 글들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역사서를 발간하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출판부(Cambridge University Press)가 각 나라의 역사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데, 한국의 고대로부터 오늘의 역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서술하는 두터운 4권의 책으로 기획된 프로젝트를 한국의 학자가 아니라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에게 맡길 정도의 학문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⁶⁾ 다행히 국내학계에서도 “미국에서 한국사에 관한 연구가 …… 수적으로도 상당량이 쌓여 있다는 것은 그곳에 축적되어 있는 학문적 지식이 질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 하였다고 진단하고 우리학계가 그들의 연구업적과 경향에 관심 두어야 한다고 겸손히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나타나고 있다.⁷⁾ 어떤 면에서 내가 나의 참모습을 살피기 위해 내가 본 나에 대하여 다른 이가 그린 나의 모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계화의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하다.⁸⁾

다시 말하지만, 그렇기에 나는 미주(미국과 캐나다)를 잠시 방문하거나 잠시 머물렀던 신문기자나 대학교수들이 피상적으로 관찰한 잘못된 통계, 미국과 캐나다 사람들의 외교적 겸손과 수다스러운 엄살에 바탕한 미주에서의 한국학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5) 생각 나는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한번 훑어보면 Cornell, Yale, Colombia, UPenn, Princeton, Harvard, George Washington, Georgetown,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Chicago, Northwestern, Illinois, Indiana, Ohio, Iowa, Georgia, Trinity, Texas, Southern Methodist, Oklahoma State, Denver, Kansas, Washington, UC-Berkeley, Stanford, San Francisco State, UCLA, USC, Portland State, Hawaii와 같은 대학에서 한국의 언어, 역사, 사회, 경제, 경영, 정치,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6) General Editor는 James B. Palais로서 그는 University of Washington의 교수이자 Journal of Korean Studies의 founding editor였다. 나도 넷째 권(근.현대)에 한국개신교와 역사변동에 관한 한 분야를 집필하였다.

7) 정두희, “歐美에서의 한국사 연구의 경향”, 정두희(외), 歐美 韓國學研究의 傾向과 評價 (人文研究論集23), 西江大 人文研究科學研究所, 1996, 1~70쪽 특히 1~2쪽과 70쪽 볼 것.

8) 동북아시아 세 나라가 ‘역사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터에 중국과 일본 학계의 경향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미주 학계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주에서의 한국 전문가가 많으며, 독립된 한국학 학과가 많이 있다는 개량적 이야기도, 우리의 관심은 미국과 캐나다 사람들(미주 한인동포들을 포함해서)이 왜 한국에 관심 가지는가, 그들의 한국연구 환경, 태도, 경향, 그리고 그들의 학문적 시각과 업적, 그리고 수준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미주에 있어서의 한국학을 역사적으로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어제와 오늘의 어머니이고, 내일 또한 오늘에서 잉태된다는 그 역사학의 상식, 상식적 역사학이 그렇게 일러주고 있기 때문이다.

2. 미주 한국학, 그 역사

1882년 조미수교 전후에 시작된 미주에서의 한국학의 역사를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제1기는 1882년부터 1945년까지로 개척기라고 할 수 있다. 몇 사람의 관리들도 한국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 시기에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교사들이었다.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진, “다른 것에 대한 호기심”에 더하여, 어떻게 하면 조선 사람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까, 다시 말해서 효과적 선교를 위해서 조선, 조선의 말과 글, 풍습, 사상, 종교, 제도를 연구했다. Korea in Transition 을 비롯하여 술한 역작을 내어놓은 게일(James S. Gale)과 같은 우수한 학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들 선교사들의 한국 연구는 서양우월의 문화적 편견이 있긴 해도 황무지를 개척했다는데 한국 연구의 연구사적 중요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⁹⁾

제2기는 1945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로 과도기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서 냉전의 시작부터 월남전 전후에 그 질서가 한풀 꺾이기 시작할 때까지 미주, 특히 미국에서의 한국 연구는 정부관리들 - 국무성, 정보국, 군사정보처 안팎의 사람들에게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은 동서 냉전적 질서의 중심부 사람들답게 그 질서를 지탱하고 미국의 이해를 위해 한국을 연구했다. 이들의 연구경향은 관료적이고, 냉전적이며, 이념적이다. 이전의 “노골적(manifest)” 오리엔탈리즘의 시각과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latent)” 오리엔탈리즘으로 바뀌고 있었을 뿐 그들이 가진 편견과 우월의식은 이 시기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¹⁰⁾

9) 9 코넬대학의 마이클 신(Michael Shin)은 이 개척기에 한국 연구를 시작한 선교사들이 모두 오리엔탈리즘에 빠져 서구인들이 가진 역사의 외계, 낯선 타자, 야만의 땅, 다른 세계와 동떨어진 은자의 나라라는 서구인의 편견, 우월감이 확연히 나타난다고 비판한다. 그의 글 .미국 내 한국학 계보 『역사비평』 59호(2002년 여름), 76~98쪽, 특히 76쪽을 볼 것.

제3기는 1960년대 중반부터 오늘날까지의 시기인데, 성숙기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월남전을 겪으면서, 반전운동이나 흑인 인권운동으로 학계를 비롯하여 미국사회 구석구석에서 냉전적 백인우월주의 인종차별적 질서에 대한 저항과 비판이 드세게 일어났다. 이 물결을 타고 잉태된 수정주의자들이 탈냉전, 백인우월의 인종주의를 벗어나려는 학자와 지식인들이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정부기관과 민간연구단체에 들어가고, 기존 세력이 이 거센 물결에 대응, 응전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이전의 관료적, 냉전적 한국 전문가들을 압도하는 우수한 한국 연구자들이 등장하였다. 이를테면, 소극적이긴 하지만, 월남전을 반대,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에 온 젊은 지식인 그룹이 한국 전문가로 등장하였다. 넓게는 미국의 기존질서, 좁게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비판적인 이들이, 우연히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며 한국의 언어, 풍습을 익히고, 한국을 연구하기로 결심, 미국에 돌아가 버클리, 워싱턴, 하버드, 컬럼비아와 같은 우수 대학에서 한국을 심도 있게 연구한 후 각 대학에 자리잡고, 미주의 한국학을 주도하고 있다.¹¹⁾

이 성숙기에 우리는 다음 두 그룹의 한국학 전문가의 등장과 기여를 기록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바로 관료적이고 동서냉전적 한국 연구의 울타리를 넘어나와 학문적 한국학의 길을 개척한 이들이다. 첫째가 한국출신으로 미주 한국학의 기초를 다듬는 역할을 한 학자들이다. 이를테면 1970년대부터 미주 ‘한국학의 메카’로 등장한 워싱턴대학교에는 한국어문학을 가르친 서두수(교육학, 타계)가 있었고, 하와이대 서대숙(정치학), 최영호(역사학), 휴 강(Hugh Kang, 역사학, 타계)과 피터 리(Peter Lee, 문학, 지금은 유씨엘에이에 있음)가 있다. 펜실베니아대의 이정식(정치학), 웨스턴 미시간대의 앤드류 남(Andrew Nahm, 역사학),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의 장윤식(사회학), 보스턴대학의 정재식(종교사회학), 신시내티대학의 김한교(정치학), 코네티컷대의 김한교(정치학) 등이 그들이다.¹²⁾ 이들은 세계 제2차대전 이후 미주의 한국학이 ‘학문’으로서 그 기초를 다지고 동서냉전시대 관료적이고 서구우월주의의 시각을 극복하고자 했던 학자들이다.

특히 이정식과 서대숙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계열의 민족운동과 북한연구를 앞서 개척하여 한국학계에 큰 족적을 남기었다. 이정식은 The Politics of Korean

10) 원문, 76~77쪽.

11) 『한국전쟁의 기원』(The Origins of the Korean War)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커밍스(Bruce Cumings, University of Chicago), 『제국의 후예』(Offspring of Empire)를 쓴 에컬트(Carter Eckert, Harvard University) 그리고 『문화적 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 in Colonial Korea)를 쓴 Micheal Robinson, Indiana University), 한국천주교에 관심을 가진 베이커(Donard Bak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가 그 대표적 보기이다. 이들과 함께 공부한 던칸(John Duncan, UCLA)도 이 그룹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12) 북미한인대학교수협회, 『북미한인대학교수총람』(Cresskill, NJ: The Korean-American University Professor Association, 1996) 여러곳을 볼 것.

Nationalism¹³⁾와 Korean Workers' Party: A Short History¹⁴⁾와 같은 업적을 내어놓았다. 그리고 서대숙은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¹⁵⁾과 같은 개척적인 연구성과를 내어놓았다. Anthology of Korean Poetry,¹⁶⁾ Korean Literature: Topics and Themes,¹⁷⁾ Lives of Eminent Korean Monks¹⁸⁾를 비롯, 수많은 한국의 문학을 작품을 번역, 소개하고 한국문학을 서양 세계에 접목시키려한 피터 리는 미주한국학의 중심에 한국문학의 토대를 앞서 구축하였다.

둘째는 순수학문의 열정을 가진 미국인 한국학자들이다. 하버드의 와그너(Edward W. Wagner, 1924~2001), 워싱턴의 팔레(James B. Palais, 1934~2006) 그리고 컬럼비아의 레디아드(Gari K. Ledyard)와 같은 이들이다. 조선사회사에 관심을 가진 와그너는 The Literate Purge: Political Conflict in Early Yi Korea¹⁹⁾를 남겨 놓았다. 와그너는 학문적 업적에 더하여 팔레와 같은 탁월한 제자를 길러내 미주한국학의 미래를 준비해준 인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그의 제자 팔레는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²⁰⁾ Human Rights in Korea,²¹⁾ 그리고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s: Yu Hyongwon and the Late Choson Dynasty²²⁾와 같은 서양세계의 한국학의 학문적 수준을 한껏 보여 주는 업적을 남기었다. 특히 그는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가 기획한 네 권의 History of Korea를 총괄하며 여러 글을 스스로 쓰며 세계의 한국역사 권위자들과 그들의 업적을 함께 엮어내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²³⁾ 레디아드는 한국어학사 연구에 기초를 다졌다.

미주 한국학 성숙기 초기에 후학들을 가르치며 한국학의 수준을 높인 와그너와 팔레 그리고 레디아드는 비슷한 경로로 한국학을 연구하게 되었다. 와그너는 1942년에 하버드에 입학했으나 이듬해, 그러니까 세계 제 2차대전 말에 육군에 입대하여

13) 1963년에 캘리포니아대학(Berkeley) 출판사에서 출판한 이 책은 한국민족주의연구의 고전이 되었다.

14) 이 책은 1978년 Hoover Institute Press에서 출판되었지만 그 연구는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다.

15) 1967년 프린스턴 대학출판사에서 출간된 이 책은 초기 공산주의운동과 북한정권 탄생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고전적인 길잡이가 되었다.

16) 1964년 뉴욕의 John Day 출판사에서 출간한 이 책은 수정보완하여 1974년 하와이대출판부에서 다시 출간하였다.

17) 1965년 아리조나대학 출판부에서 출간함.

18) 1969년 하버드대 출판부에서 출간함.

19) 1974년 하버드 동아시아연구소에서 간행.

20) 1976년 하버드대출판부에서 출간.

21) 1986년 Asia Watch Committee에서 간행.

22) 1996년 워싱턴대 출판부에서 간행.

23) 이른바 '케임브리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은 팔레를 비롯 시카고의 커밍스, 유씨엘에이의 던칸, 인디애나의 로빈슨,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베이커, 하버드의 에커트, 콜롬비아의 암스트롱, 코넬의 마이클 신, 유럽의 도히칠러, 일본의 와다 하루키, 한국의 김기혁, 유영익, 민현구, 박정신 등이다. 불행하게도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하고 2006년 팔레는 세상을 떠났다. 아직도 그의 수준 높은 학문적 기여와 열정을 미주한국학계, 아니 세계의 한국학계가 필요한데도 말이다.

1948년에 전역하고 하버드로 다시 돌아가 학위를 받고 졸업 그곳에서 가르치다가 2001년에 타계하였다. 1946년부터 1948년까지 남한 미군정의 자문관(civilian adviser)으로 복무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한국 연구를 하게 되었다.²⁴⁾ 팔레는 하버드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군에 입대하여 군사어학교(The Army Language School at Montray, California, 지금은 Defense Language Institute라고 이름을 고쳤음)에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근무한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 역사를 평생의 업으로 삼게 되었다.²⁵⁾ 러디아드도 이 군사어학교에서 일본어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근무한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어와 한국어학을 연구하게 되었다.²⁶⁾ 세계 제 2차 대전과 한국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른 세계 각 지역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육성되어진 국제학(international studies)의 흐름을 타고 이들은 한국학을 연구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바로 이들은 미국대학에서 국제학의 하나로 한국학의 뿌리를 내리고 이 성숙기를 함께 이끈 미주의 한국학자들을 교육시킨, 그야말로 성숙기를 성숙기이게끔 만든 이들이다.

3. 미주 한국학의 환경과 경향

미주에 있어서 한국학의 연구환경은 어떠한가 그 경향은 어떠한가. 미주한국학에 종사하는 이들의 근·현대 연구에 기대어 이를 짧게 살펴보자.

첫째, 풍부한 자료, 잘 정리된 자료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다. 19세기 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관계가지면서 미국과 캐나다는 한국에 관한 엄청난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하여 왔다. 우리가 갖고 있으나 정리 안 된 자료를 비롯, 선교사들의 기록, 미 군사정보 보고서, 정보국 정보자료들이 그렇다. 1995년 6월 초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미 국회도서관에 오래도록 근무하다 은퇴한 양기백의 증언처럼 한국 학자들이 한국관계 자료를 찾아 미국 국회 도서관, 하버드 옌칭 도서관(Yenching Institute), 버클리, 워싱턴의 동양 도서관을 찾고 있는데, 이는 풍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연구환경 때문일 것이다. 한국 기독교역사연구소의 이만열 등은 미국으로 가 한국기독교 관계자료를 복사, 수집하는데 분주하고, 그 밖에 우리의 현대사 연구에 관심 가진 학자들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줄지어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한림대학과 관계맺고

24) 와그너의 삶과 학문에 대해서는 Kim Keong-il(ed.), *Pioneers of Korean Studies*(Seoul: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4), 387~404를 볼 것.

25) 팔레에 대해서는 윗글, 561~593쪽을 볼 것.

26) 레디아드에 대해서는 윗글, 517~560쪽을 볼 것.

있는 미국의 방선주는 미 국회 도서관에 매일 출근해서 우리에게 없는 한국관계 자료를 찾아 한국에 소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²⁷⁾

미국이 우리 현대사와 깊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넘는 한국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해방직후 북한에 대한 자료는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보여진다. 이를테면, 북한 기독교인의 동향에 관한 자료는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미 군사정보국 등과 같은 기관에 의해 수집되고 보존되어있다. 이 자료들 가운데 김일성 세력의 대민, 대기독교인 동향분석과 북한 기독교인들, 학생들의 성명서, 격문(한글)과 같은 귀중한 자료가 있을 정도다.²⁸⁾ 이처럼, 근현대에 관한 풍부한 자료와 잘 정리된,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연구 환경에서 미주의 한국학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우리의 근현대 연구 가운데 일제식민시대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주의 운동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고 생각된다. 일제가 우리를 오래토록 짓눌러 왔기에 이념적으로 좌편이나 우편, 어느 편에 속했던 우리의 일제시대 연구자들은 민족주의적 감정(nationalistic emotion) 또는 감정적 민족주의(emotional nationalism)의 짓누름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객관적이려고 노력해도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경향을 띄게 된다.

미주의 한국연구자들은 제3자이기에 더욱 객관적 입장에서 일제시대나 우리의 민족주의운동의 골과 결을 살필 수 있는 연구환경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주장한다. 우리가 가슴이 앞선다면, 미주의 한국연구자들은 머리로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분단되어 있다.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만큼 우리의 현대사 연구와 연구자들은 동서 냉전적 정치와 이념의 나눔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왔다. 분단시대의 여러 업적이 있었으나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제약을 받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이념적 나눔의 산물이 대부분이다. 우리와 견주어볼 때, 적어도 1960년대 중반이후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이념적 제약을 받지 않아 더 객관적인 연구환경을 미주의 한국연구자들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훌륭한 분단시대의 연구가 미국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정식, 스칼라피노, 서대숙, 커밍스 등의 노동당, 공산당 연구나 한국 전쟁 연구가 그렇다. 앞서 말한 이정식의 *The Politics of Korean Nationalism*과 서대숙의 *The*

27) 이를테면 한국기독교사를 뒤늦게 연구하게 된 이만열은 미국과 캐나다의 선교사들과 선교 본부가 남긴 자료들을 끊임없이 영인하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 보관하고 보급하였고, 방선주는 한림대학교와 국사편찬위원회와 함께 이러한 미주의 한국 관계자료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28) 이를테면 American Data Research Service(편), *Sonch'on chi*(Washington D.C., 1983)이다. 이것은 1946년부터 1947년 사이의 북한 평안북도 선천군에서 일어난 여러 역사적인 사건에 관한 기록들을 묶은 것이다. 이것도 방선주의 노력으로 발굴되어진 것이다.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을 비롯하여 스칼라피노와 이정식이 함께 쓴 Communism in Korea²⁹⁾와 커밍스의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두 권)가 그 보기이다.³⁰⁾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젊은 학자들 가운데 우리의 현대사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으나 새로운 시각이나 방법보다는 미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의 번역, 소개의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미주의 한국학 연구자들의 개척적인 연구에 힘입어 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나오고 새로운 방법이 나오고 있지만 말이다.³¹⁾ 짧게 말하면, 미주에서의 한국학은 근·현대 연구에 관한 한, 풍부한 자료, 더욱 객관적인 연구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주의 한국전문가들의 연구경향과 방법은 어떠한가. 첫째, 한국을 넓게, 이웃하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 또는 인류보편사와 견주어 보완하는 연구경향과 방법이다. 이를테면 미주 한국학의 대부라고 불리는 팔레는 중국 유교의 사회사적 변천과 견주어 비교하면서 한국의 유교 변천과 특수성을 추적하고,³²⁾ 한국민족주의에 관심을 가진 로빈슨은 한국의 민족주의를 민족주의에 대한 여러 이론에 비추어보고 또한 세계 각지의 민족주의와 견주어보면서 그 특수성을 읽으려 한다.³³⁾ 천주교와 조선의 유교 사회와의 만남에 관심을 가진 베이커는 천주교와 중국과의 만남과 견주며 연구하고,³⁴⁾ 필자도 일본과 중국에 있어서 기독교의 정착과정과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견주어 비교하면서 일본기독교 역사의 특수성, 그리고 기독교와 한국 역사와의 특수한 만남과 물림을 보려했다.³⁵⁾

둘째,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이다. 한 주제를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심지어 심리학의 접근을 함께 수용, 논의한다. 옛 학문 사이에 놓인 높다란 담벼락을 허물고 서로의 이론, 서로의 시각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연구 태도라 할 수 있다. 팔레가 조선시대 유교와 정치에 대한 사회사적 연구를 하면서 경제학, 사회학 그리고 정치학의 이론을 원용하고,³⁶⁾ 로빈슨이 사회학과 정치학의

29)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은 이 책을 1972년 캘리포니아대학(Berkeley) 출판부에서 출간하였다.

30) 커밍스의 이 책은 프린스턴대학교 출판부가 1981년과 1994년에 각각 출판하였다.

31) 이를테면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서울: 두레, 1998), 이완범, 『한국전쟁-국 제전적 조망』(서울: 백산서당, 1999)이다. 이밖에도 박명림의 연구도 있다.

32) 팔레에 관한 국내학자의 소개를 보기위해서 정두희의 윗글과 그가 최근 연세대 현대한국학 연구소의 해외학술학 연구콜로키움에서 발표한 팔레의 둘째 책에 관한 연구평론을 볼 것.

33) Michael E. Robinson, Cultural Nationalism in Colonial Korea, 1920~1925(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8)을 볼 것.

34) Donald L. Baker, "Confucians Confront Catholicism in Eighteenth-Century Korea"(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1983)을 볼 것.

35) 자세한 것은 Chung-shin Park,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3)를 볼 것.

36) 각주 32)에 있는 글들과 마이클 신의 .미국내 한국학 계보., 82~83쪽을 볼 것.

민족주의 논의를 폭넓게 기대고 있으며,³⁷⁾ 에커트가 자본주의 이론과 그 반론에 대한 경제학과 사회학의 이론과 연구방법을 비판적으로 원용하고 있는 것이 그 보기이다.³⁸⁾

셋째, 거시적 접근이다. 역사학을 보기로 이야기하면, 거시적 접근(macrohistorical approach)이라 할 수 있겠다. 한 인물을 다루어도 전체 역사 속에서, 전체사의 전개를 보려 한다. 이와 이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학계가 논문 중심이라면 미국학계는 연구서(monograph)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앞서 말한 팔레의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s는 장장 15년 동안 연구한 결과이다. 이러한 업적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미주 대학의 학문분위기는 성급하게 업적을 계량화하여 학자나 학문을 평가하는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넷째, 초국적, 초국가적(trans-national)학문 태도이다. 우리학계가 우리끼리, 우리가 우리를 제일 잘 안다는 좁다란 학문적으로 민족주의적 태도를 가졌다면, 미주의 한국전문가들을 국적,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다른 나라 학자들의 연구업적을 수용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영어는 물론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중국어를 훈련 받은 이들이다. 그 만큼 여러 시각에서 방법론을 아우르는 연구 업적을 내어 놓는다.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심지어는 심리학, 신학에서 이들의 논문이나 저술을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 학계에서도 미주의 한국학 업적들을 주의 깊게 읽고 있다. 이를테면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는 1998년 4월부터 거의 한 달에 한번씩 ‘해외한국학 콜로키움’을 열어 미주를 포함한 해외의 한국학 업적을 다루고 있다. 그 평론을 『해외한국학평론』이라는 학술지를 통해 우리 학계에 내어 놓아왔다.³⁹⁾ 이 평론을 통하여 지금까지 수십명의 학자들의 업적이 평가되었다. 그리고 『역사비평』은 2002년에 특집으로 미주의 한국학을 비판적으로 다룬 특집을 내기도 했다.⁴⁰⁾ 국내 한국학계가 늦게나마 미주를 비롯한 해외 한국학의 업적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미주 한인사회 형성의 역사는 19세기 말 하와이 농장으로 간 노동자의 이야기로 시작된다.⁴¹⁾ 그 후 미주 한인사회는 급성장하였다.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들, 인삼

37) 각주 33)에 있는 그의 연구서 서론을 읽을 것.

38) 그의 연구서 Offspring of Empire: The Koch'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76~1945(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1)를 볼 것.

39) 이 잡지는 2000년 봄호를 창간호로 하여 우리 학계에 나왔다. 팔레, 커밍스, 와그너, 에커트, 김기혁, 박정신 등의 저술이 논평되었다.

40) 미국의 한국사 연구. 『역사비평』 59호(2002년 여름), 27~174쪽을 볼 것. 여기에는 마이클 신, 이훈상, 김성우 그리고 정태현이 와그너, 팔레, 커밍스, 에커트의 한국사 연구 시각을 비판하고 있다.

41) 미주 한인사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Wayne Patterson, The Korean Frontier in America: Immigration to Hawaii, 1896~1910(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8)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재외동포사(미주편)』 실린 여러 글을 볼 것.

행상인들, 망명객들, 유학생들로 시작된 미주 한인사회는 해방 후 미군정, 6.25 전쟁을 거치면서 가족이민, 유학하는 이들의 수가 증가하고, 직업이민과 투자이민의 수도 증가하면서 재빨리 성장하였다.

미주 한인사회의 성장은 이민의 수의 성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을 강조하는 이민 1세대의 ‘희생’으로 2세, 3세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고 1세대들과는 달리 여러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수도 증가하였다는 뜻도 있다.⁴²⁾ 이들이 이른바 ‘주류사회’로 진출하고 이들이 ‘한인사회의 소리’를 주류사회의 한 가운데서 대변하는 이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뜻에서 미주 한인사회의 성장과 미주 한국학의 성장은 깊게 이어져 있다. 이민 1세대들이 ‘이곳’(미국과 캐나다)에서 고달프고 고생스러운 삶을 꾸리면서 그들이 온 ‘그곳’(한국)을 기린다. ‘이곳’에 ‘그곳의 문화’(한국문화)를 간직하며 이웃에 전한다. 미주 각 곳에 한인회, 한미친선회 등을 조직하고 ‘한국의 날’을 가지며 한국음식을 나누고 태권도 시범도 보이며 한복입고 우리의 춤을 춘다. 다양한 인종이 더불어 삶을 꾸리는 북미주의 이 두 나라에서 ‘자기정체성’을 지키며 다음 세대를 교육시켰다. 바로 이러한 가정과 한인사회 풍토에서 자란 2세, 3세들의 주류사회에서의 활동공간이 넓어짐에 따라 그들 ‘어버이들의 문화’가 넓어져 가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넓어져 갔다.

특히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 사이에 교역과 교섭이 증대되어감에 따라 미주 각 대학이 한국학 과목을 개설하게 되었다. 한국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이 경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무서운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한국에 대한 관심은 그대로 한국학의 성장과 이어졌다.⁴³⁾ 미주 한국학의 성장은 앞서 언급한 학자들의 헌신적 학문에의 열정의 소산이 기도 하지만, 그리고 미주 한인사회의 성장과 한국경제의 성장이 큰 기여를 했다고 보아야 한다.⁴⁴⁾ 특히 한국에 대한 관심의 급증, 그리고 세계경제대국으로 등장한 한국이 미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한국을 알릴 필요성의 급증과 맞물리면서 미주의 한국학이 성장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2) 한 자료에 의하면 1996년에 박사학위소지 한인들이 약 3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약 3천명이 대학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10년이 지난 현재에는 이 수치는 증가하였을 터이다. 『북미 한인 대학교수 총람』, 권두언을 볼 것.

43) 하버드의 카터 에커트 교수는 한국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을 “한강의 기적”(the miracle on the Han)이라고 했고(Carter J. Eckert, et. al., Korea Old and New(Seoul: Ilchokak, 1990, 388쪽을 볼 것), 에즈라 보겔은 싱가포르, 홍콩, 대만과 함께 한국을 무서운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는 “네 마리 용들”이라고 했다(Ezra F. Vogel, The Four Little Dragons: The Spread of Industrialization in East Asia(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을 볼 것).

44) 미국 한국학 연구 안내서인 Craig S. Coleman(ed.), A Guide to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서론을 볼 것. 여기에서 콜만은 미주 한국학의 성장은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나아가서 세계경제에 중요한 경제 강국으로 등장한 것과 이어져 있다고 하였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한국 정부와 재계가 미주를 중심으로 한국학 지원에 나섰다. 기 때문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1970년대 중반부터 하버드, 버클리, 유씨엘에이,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와 같은 대학에 한국학지원금을 주었고,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의 '일본국제교류재단(The Japan Foundation)'이 그렇게 한 것처럼 '한국국제교류재단(The Korea Foundation)'을 설립하고 한국학 관련 강좌 개설, 교수요원 총원, 연구비와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다.⁴⁵⁾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05년도에도 남가주대, 아이오와대, 펜실베이니아대, 조지아공대, 피츠버그대, 매릴랜드대 한국학 교수직 비용을 지원하였고, 예일대, 브리티시 콜럼비아대 한국학 강좌 운영지원을 하였다. 이 밖에도 20여 명의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교수연구비, 출판지원을 하였다.⁴⁶⁾ 분명 이러한 한국정부와 재계의 노력으로 미주 한국학 강좌도, 교수도 그리고 학생들도 늘어나게 되었고, 연구업적도 크게 신장되었다. 이민 2세, 3세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은 후 전문 직종을 가지고 미주 주류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할 때 이 가운데는 이민자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 그들 어버이들이 온 '그곳'에 대한 관심이 싹트게 되었다. 이들이 워싱턴, 하버드, 유씨엘에이, 시카고와 같은 한국학 전문가들이 있는 곳으로 가 한국학을 전공으로 학위를 받고 대학교수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찬사를 보내는 이들을 보며 '그곳'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어 한국학을 전공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남북 분단, 군사독재체제와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그곳'의 어둡고 우울한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학을 연구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⁴⁷⁾ 어떤 연유로 한국학을 업으로 삼게 되었든지 지금 한국학 프로그램이 설치된 미주의 주요대학에는 이른바 '한국계 미국인들(Korean Americans)'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보기를 들어 유씨엘에이에서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이 5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들 거의 모두가 '한국계 미국인들'이다.⁴⁸⁾ 이들, '한국계 미국인들'과 '한국계 캐나다인들(Korean

45) 그러나 박정희 정권과 그 이후 한국정부가 미주 '한국학의 메카'로 떠오르기 시작한 워싱턴 대학교에 한국학 육성 지원금을 주려고 했지만 팔레 교수가 여러차례 거절하였다. 그는 독재자에게 연구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한국이 남북으로 나뉘어있어 한쪽에서 지원금을 받는다면 객관적인 연구가 되지 못하며, 이러한 지원금을 통해 학문영역에 권력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Pioneers of Korean Studies*, 586~587쪽을 볼 것.

46) 한국국제교류재단, 『2005년 연차보고서』(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2006), 자료 여러 것을 볼 것.

47) 이를테면 임흥순(Hery Em)은 이민자의 자녀로 시카고에서 어린시절을 보냈고 시카고대학생때 광주민주화운동을 맞았다. 그후 광주에서 온 윤한봉을 만나고 또래의 교포학생과 청년들과 함께 한국문제를 토론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공부를 중단하고 1980년대 중반 인천으로가 노동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후 미국으로 돌아가 시카고대학에서 한국역사로 박사학위를 받고 유씨엘에이 교수직을 거쳐 현재 미시간대학 한국학 교수로 있다. 이러한 임흥순의 개인사와 그가 한국학을 하게 된 연유는 1980년대 중반 워싱턴에서 박사학위논문을 마무리하고 있던 필자에게 들려준 내용이다.

48) 유씨엘에이에서 '한국학연구소'(Center for Korean Studies) 소장으로서 있는 던칸(John Duncan)교수와 이곳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국(영산대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포역사가 윤영인(Peter Yun)과의 면담에서 얻은 정보다. 브리티시 콜럼비아대학의 '한국학연구소'(Center for Korean Studies)의 소장인 베이커(Donald

Canadians)’이 미주 의 한국학 교수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⁴⁹⁾ 이를테면, 일레인 킴(Elain Kim)은 소수민족으로서 한국계 미국인들에 대한 연구로 유씨-버클리 교수로 있으며, 비슷한 분야인 장태환(Edward T. Chang)은 유씨-리버사이드 교수로 있다. 임흥순(Henry Em)은 시카고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유씨엘에이를 거쳐 미시간 한국학 교수로 있으며, 마이클 신(Michael D. Shin)은 시카고에서 일제시대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코넬 한국학 교수로 있다. 인류학의 소니아 양(Sonia Yang)은 아이오아대 교수로, 사회학의 박현준은 펜실베니아대 교수가 되었다. 제니퍼 정-김(Jennifer Jung-Kim)은 유씨엘에이에서 일제시대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스미스 교수로 임명받았다. 이처럼 미주 한국학계에 이른바 “한국계 미국인들’과 ’ 한국계 캐나다인들’이 속속 자리를 잡게 될 전망이다.⁵⁰⁾ ‘이들’은 ‘미주 한국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활동하지 않는다. 국제화니 세계화니 하며 우리 사회가 야단이고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 국제학 프로그램 설치 경쟁을 벌일 때 바로 ‘이들’이 한국의 한국학계로 진출하였다. 이 국제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 전이지만 1970년대 말 미주의 역사학자 유영익(Young-ick Lew)이 한국학계로 왔다. 그는 하버드에서 갑오경장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휴스턴대학교에서 종신교수로 있다가 고려대, 한림대를 거쳐 연세대 국제대학원 한국학 석좌교수로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워싱턴에서 기독교와 한국역사변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필자는 남오레곤 주립대를 거쳐 오클라호마주립대 종신교수로 있다가 2000년에 송실대로 들어왔다. 그리고 어릴 때 캐나다로 이민간 김은기(Andrew E. Kim)는 토론토대학교에서 한국종교연구로 사회학박사를 받고 그곳에서 잠시 강의하다가 지금은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서 활약하고 있다. 윤영인(Peter Yun)은 펜실베 니아를 거쳐 유씨엘에이에서 고려사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곳에서 잠시 강의하다가 한국으로 와 고구려역사재단에서 일했다. 그는 지금 영산대학교 교수로 있다. 마이클 김(Michael Kim)은 하버드에서 일제시대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있다. 흥미있는 것은 바로 미주한국학계에서 활동하다가 귀국한 이들과 미주에서 한국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대학에 교수직을 얻은 이른바 이민 2세 학자들은 미주와 한국의 한국학계를 잇는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유영익은 1990년대 중반에 연세대학교에 ‘현대한국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를 만들고 ‘해외한국학콜로키움’을 실시 미주를 비롯한 해외 한국학업적을

Baker) 교수와 토론토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기(Andrew E. Kim)교수의 면담에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다.

49) 미주 한국학의 ‘대부’라고 불리는 워싱턴의 팔레 교수는 ‘이들’(한국계 미국인들)의 한국학에의 관심을 주목하며 한국연구에 “객관성”만 담보된다면 바람직하다고 ‘객관성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Pioneers of Korean Studies*, 584쪽을 볼 것.

50) 한국국제교류재단, 『2005년 연차보고서』와 던칸, 베이커, 피터운 등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기대었다.

국내외 학자들로 하여금 평론케 하고 이를 『해외한국학평론』을 통해 학계에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학자들을 유치하여 ‘국제한국학학술대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우리 한국학계와 미주를 비롯한 해외 한국학계의 담벼락을 헐고자 하였다. 필자는 최근 국제적 학문감각을 지닌 국내 한국학 연구자들과 해외 한국학 종사자들과 함께 ‘국제한국역사 문화학회’를 만들어 ‘국학의 국제화’를 모색하고 있다.⁵¹⁾

미주의 한국학계에 등장한 이민 2, 3세대들의 연구관심이 주로 근, 현대 한국에 집중되어있다. 거의 모두가 일제식민시대와 그 이후의 역사, 종교, 사회, 경제, 문화, 문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고대나 중세 또는 전근대에는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주 한국학 성숙기를 연 와그너, 팔레 그리고 레디아드가 전통 시대에 관심을 갖고 한국을 연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실 이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은퇴한 이후 미주에는 전통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는 단지 유씨엘에이의 던칸과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베이커를 비롯한 서너 명의 학자가 전부다. 이민 2, 3세대들이 미주 한국학에 등장하였음에도 말이다. 워싱턴의 팔레 후임도 전근대 한국역사 연구자를 뽑으려 하고, 또한 유씨엘에이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치고 은퇴(2006)한 피터리의 후임을 전통한국문학자리로 결정하고 교수요원을 선임하려고 해도 전통시대를 연구한 마땅한 젊은 학자가 없다.⁵²⁾ 그만큼 미주 한국학이 근, 현대에 쏠려있다는 증거이고 이것은 미주 한국학의 어두운 미래다. 그 주된 이유가 언어문제이다. 전통 시대 한국을 연구하려면 한문, 중국어, 일어를 천착하여야 하는데 한국학에 뛰어든 이민 2, 3세대들이 이러한 언어훈련을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꼬리말

미주의 한국학의 역사, 연구, 환경, 그리고 연구 방법과 경향을 짧게 훑어보면서, 미주 한인들의 한국학계 진출을 살펴보았다. 19세기말 선교사들과 관리들이 ‘한국 연구’를 한 이래 한국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 사이의 교역과 교섭이 증대되고, 특히 1970년대 이래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감에 따라 미주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이 성장하게 되었다.

미주 한국학의 경향이 인접 학문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다양한 퍼스펙티브와 이론, 방법을 원용하고 결과를 수용하는 학제간의 연구였다. 특히 이들은 한국의 역사 경험을 연구하는데 국적과 국경의 울타리를 넘어 범세계적 시각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51) 국내에서 영산대의 피터운, 연세대의 마이클 김, 외대의 반병률, 숭실대 박정신, 미주에서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베이커, 인디애나의 마이클 로빈슨, 유씨엘에이의 던칸, 미시간의 헨리 임 등이 이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

52) 워싱턴 한국학 자리에 대해서는 팔레가 타계 전 필자에게 말했다, 유씨엘에이 한국문학 자리에 대해서는 던칸과 피터운과의 대답에 기댈.

도 눈여겨보았다. 한국의 역사경험을 연구하는데 이들은 보편성 위에서 그 특수성을 보고자 비교론적 접근을 하고 있다. 미주의 한국학 연구자들이 ‘우리의 우리연구’에는 민족주의적 정서가 배어있다고 비판하며 ‘그들의 한국연구’는 민족주의적 정서와는 관계가 없이 ‘객관적 연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미주 한인들의 한국학 연구를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도 있다. 또한 이민 2, 3세들이 언어문제로 근현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 미주 한국학의 미래를 염려하는 시각도 있다.⁵³⁾ 그러나 이러한 염려는 미주 한인사회가 더 성숙하게 성장하고, 이민 2, 3세들이 지속적으로 한국학에 관심을 가질 때 그 결과로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많이 나오면 그들의 관심도 다양화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근.현대를 넘어 전통시대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증가할 것이고, 이들이 언어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미주 한국학의 급성장을 고무, 격려할 때이다.⁵⁴⁾

53) 앞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을 비롯한 한국정부와 재계의 한국학 지원은 미주 한국학의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육성하여야할 것이다.

54) 1970년대 초반 하더라도 하버드, 버클리, 워싱턴, 컬럼비아, 하와이 등에만 한국학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이 대학들 외에 시카고, 코넬, 예일, 뉴욕주립대, 조지아공대, 노스웨스턴, 유씨엘에이, 남가주, 조지아, 브리티시 콜럼비아, 토론토 등 수많은 대학에 한국학 프로그램이 있고, 브루킹스, 랜드, 노틸러스, 스탬슨과 같은 독립 연구소에서 한국학 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높아진 위상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기초자료]

북미한인대학교수협회, 『북미한인대학교수총람』, The Korean American University Professor Association, 1996.

국제교류재단, 『2006년 연차보고서』, 국제교류재단, 2006.

American Data Research Service(com.), Sonch'onchi, Washington D.C., 1983.
Coleman, Craig S., A Guide to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The Korea Society/Los Angeles, 1993.

Kim, Keong-il(ed), Pioneers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4.

[저서]

정두희 외, 『구미 한국학의 경향과 평가』,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96.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두레, 1998.

이완범, 『한국전쟁 - 국제전적 조망』, 백산서당, 1999.

Lee, Chong-sik, The Politics of Korean Nationa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3.

_____ and Scalapino, Robert A., Communism in Korea, Part I: Move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_____, Korean Workers' Party: A Short History, Hoover Institute, 1978.

Lee, Peter, Anthology of Korean Poetry, John Day Press, 1964.

_____, Korean Literature: Topics and Themes,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65.

_____, Lives of Eminent Korean Monk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Suh, Dae Sook,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Wagner, Edward, The Literati Purge: Political Conflict in Early Yi Korea, East Asian Research Center/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Palais, James B.,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_____,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s: Yu Hyongwon and the Late Choson Dynasty,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6.

Cu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Vol.1,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_____,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Vol.2,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Robinson, Michael E., Cultural Nationalism in Colonial Korea, 1920~1925,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8.

Wayne Patterson, The Frontier in America: Immigration to Hawaii, 1896~1910,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8.

Eckert, Carter J., et.al, Korea Old and New, Ilchokak, 1990.

_____, Offspring of Empire: The Koch'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76~1945,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1.

Vogel, Ezra F., The Four Little Dragons: The Spread of Industrialization in East Asi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Park, Chung-shin,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3.

논문

신, 마이클, 「미국내 한국학 계보」, 『역사비평』 59호, 76~98쪽, 2002.

역사비평(특집), 「미국의 한국사 연구」, 『역사비평』 59호, 2002.

Baker, Donald L., "Confucians Confront Catholicism in Eighteenth-Century Korea"(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1983.